

알바생 36% “나는 생계형” 희망소득은 월97만5000원

아르바이트 목적 “생활비 벌기 위해” 41.3%

알바생 5명 중 2명은 자신이 생계형 알바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로 벌기를 희망하는 월 소득은 평균 97만 5000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약 18만원이 적은 79만8000원 수준이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은 최근 알바생 3315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목적’을 묻는 설문조사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가운데 36.2%는 나는 생계형 알바생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다’는 응답은 27.4%로, ‘반반’이라는 응답은 36.4%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형 알바생의 경우) 생활비를 벌기 위해(41.3%)를 1위로 꼽았다. 반면 ▲생계형 알바생이 아니라고 답한 그룹에서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가 68.2%로 압도적으로 높은 1위를 차지했다.

▲반반이라고 답한 그룹에서도 ‘용돈벌이’가 58.0%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용돈벌이(51.8%)’, ‘생활비 마련(19.2%)’, ‘등록금, 여행자금 등 특정 목적의 자금 마련(14.4%)’,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7.7%)’ 등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생계형 알바의 경우 53.4%는 더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일단 급여가 높은 알바를 찾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알바몬 설문조사에 참여한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저두기로 희망하는 한달 희망소득은 월 평균 8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로 받고 있는 월 평균 알바소득은 68만8000원으로 희망소득보다 평균 15만 6000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은 ▲생계형 알바 그룹으로 97만5000원을 벌기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실제 소득은 이보다 17만7000원이 적은 7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비생계형 알바 그룹의 희망소득은 72만9000원, 실 소득은 59만원이었다.



광주신세계, 시코르에서 화해하자

‘화해’란 화장품을 해석한다는 뜻의 어플로 각종 인기 뷰티 아이템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성분 분석 및 광고를 뺀 솔직한 사용 리뷰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화장품 전문 어플이다.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 시코르매장에서는 2월 25일까지 화해 어플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기템을 선정하여 할인 및 시은품 혜택을 주는 시코르에서 화해하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화해 어플에 선정될 만큼 인기가 있었던 VT팩트는 20% 할인하여 2만5천6백원 프라이젤오일은 30% 할인하여 1만9천6백원에 판매한다. 화해 어플 가입 고객은 혁신리 마스크 3종 체험분을 일일 100세트 한정으로 22일까지 증정한다.

에어컨, 겨울에도 ‘불티’



LG전자가 올해 에어컨 생산량을 전년 대비 1.5배 늘렸다. 에어컨 제품의 계절성이 열리지면서 늘어난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에어컨은 텔레비전(TV), 세탁기와 같이 보급률이 높은 전통적 가전제품군에 속한다.

LG전자, 올해 생산량 전년비 1.5배 늘려

가정용 시장 규모 13% ↑ 250만대 전망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19일 LG전자는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경남 창원 가전 공장서 생산하는 에어컨 불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늘었다”며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에어컨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나

하지만 최근 에어컨이 다기능 제품으로 활용되면서 시장의 성장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올해 가정용 에어컨 시장 규모가 250만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추산치인 220만대와 비교

하면 13%에 이르는 성장을 예측하는 셈이다.

특히 공기정정과 같은 비계절성 기능이 도입되고 전력 효율을 향상하는 등 성능적인 개선이 이뤄지면서 신제품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관측이다.

이들 제조업체들은 에어컨 신제품이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지능화된 구동은 물론 주거지 사물인터넷(IoT)의 가교 역할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레로 LG전자는 지난해 자사 AI 브랜드인 딥싱큐를 적용한 회전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스피커 등 다른 기기와의 연동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원격 제어 등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연동기기 등을 통하거나 기기 주변 3m 반경에서 음성으로 지시를 하면 전원·온도·바람세기 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실내의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기가 자체적으로 사용자 습관에 맞춰 공기정정·제습과 같은 기능을 실행하게 된다고 LG전자는 밝혔다.

LG전자는 “기능과 효율 개선이 진행되면서 에어컨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적용한 에어컨 제품이 대중화하는 과정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와인, 수입가격-판매가격 10배 차

한국소비자원, 레드와인 11.4배 · 화이트와인 9.8배

수입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늘어났지만, 가격면에서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입와인의 평균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레드와인은 평균 11.4배, 화이트와인은 평균 9.8배로 다른 품목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비슷한 기간 생수는 6.6배, 맥주 6.5배, 마요네즈 4.0배, 케첩 3.2배, 오렌지주스 2.0배, 쇠고기 3.5배 등이다.

이처럼 수입와인의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유는 세금 외에도 운송 및 보관료, 임대료 및 수수료, 판매촉진비,

유통마진 등 유통비용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중소수입사들의 시장 참여 확대 등 가격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와인에 대한 선택 다양성에는 높은 점수를 줬다. 소비자원이 수입와인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택다양성 만족도’가 5.28점(7점 만점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뉴스

중소 10곳 중 7곳 “가업승계 할 것”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500개 대상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7.8%는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2016년 조사결과(66.2%) 대비 1.6%포인트, 2015년 조사결과(42.2%) 대비 25.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

기업의 의지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설명했다.

이러한 가업승계계획을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결과(44.2%) 대비 12.2%포인트 상승한 56.4%로 나타났다.

가업승계계획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되어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조사결과(45.2%) 대비 18.0%포인트 상승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34.8%)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뉴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